

불자 세상보기



선업 스님
광행복지유센터장

확박한 살림살이로 힘든 사회를 건디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선행과 자비나눔이 때때로 커다란 효자로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줄 때가 있다.

2015년 강남의 한 지하철 대여 사물함에 '달콤참고'가 문을 열었다. 공간설치의 취지를 설명한 "초코렛과 사랑을 넣어 놓았으니 눈치 보지 말고 먹고 먹어. 살기 힘든 세상, 달콤한 과자를 먹고 힘을 내라"는 문구는 'SNS 어라운드'를 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상에 지친 누군가를 위한 조그마한 선물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노릇을 하고 있다.

고무적인 점은 대여비 문제로 문을 닫는 듯하더니 오히려 어려운 사정이 알려져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현대 중이라는 사실이다.

2006년 한국의 명동 길거리에서 벌어진 캠페인도 기억에 남는다. '프리 허그(Free Hug)'라는 피켓을 든 청년이 자신에게 포옹을 청해오는 불특정 사람들을 그냥 안아준 것이다. 포옹을 통해 파편화된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취지로 2001년 시작된 '프리 허그 캠페인'이 한국에 상륙한 것이었는데 몇몇어쩌면서 등등을 토닥인 후 뿌듯함에 환한 미소를 짓던 이들의 표정이 지금도 미소를 머금게 한다.

그 뒤로 여러 시민 사회 단체에서 조금 변형된, 하지만 취지를 잃지 않은 다양한 '안아주기 운동'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다.

1989년 3월 월간 해인지에 실린 '따주기' 성훈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가능한 자비 나눔 방법을 몸소 실천한 좋은 사례이다. "스님은 바늘 하나로 손가락을 따줌으로써" 많은 이들의 불편한 몸을 호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당시 전국적으로 현여 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주기 행을 실천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 뜻은 스님이 열반한 이후에도 이어져 현재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자비 나눔 즉 보시의 정신을 실천한 분들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사찰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가 불룩한 포대화상도 그 중에 한 분이다. 넉넉한 몸집에 항상 웃는 얼굴인 스님은 지팡이 끝에 커다란 자루를 메고 다녔다.

그 자루 속에는 장난감, 과자, 엿 등이 담겨 있었고 마을을 돌면 아이들이 모여들어 한바탕 선물 잔치가 벌어지곤 했다. 포대화상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분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이 곳 이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된다.

지혜로운 나눔을 뜻하는 보시의 종류는 분류 방식에 따라 이중시(二種施)·삼시(三施)·팔종시 등으로 나눈다. 이 중 삼시는 재시와 법시와 무외시(無畏施)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시(飲食施), 재물을 나누어 주는 진보시(珍寶施), 정법(正法)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신명시(身命施) 등의 세 종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시의 종류를 적용해 보면, '달콤참고'와 포대화상의 경우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시'를 통해 자애와 연민의 무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이고 성훈스님과 '안아주기'는 무재질시 중에 몸으로 배푸는 신시(身施)를 통해 이웃들을 돕고 있는 경우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자그마한 자비 나눔 방법이라는 것이다.

2016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 속에서 많은 다짐을 하게 된다. 해달라는 말의 풍년으로 불보살님의 귀가 따갑다는 우스개도 들린다. 찾아 쓰려면 저급한 것이 있어야 가능한데 쌓은 것이 없으니 출금하러니 속만 상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 나눔, 즉 보시 계좌에 자그마한 공덕부터 쌓아나갔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없는 파종이 아니라 자그마한 나눔이 주변에 큰 행복을 선사하는 '나비효과' 같은 그런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는 한 해를 우리 모두 만들어 보자.

社說

2016년을 통일 '원년의 해'로

남북 불교계가 병신(丙申)년 새해를 앞두고 서로에게 신년 인사를 건넨다는 소식이 있다.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구랍 30일 서신을 통해 '2016 새해인사'를 주고받았다. 매년 이뤄지는 일이지만 반가운 관례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민족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북불교도 교류와 연대가 더욱 활발해지는 새해가 되도록 서로 합심하자"고 당부했고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은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질 새해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불교도 사이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은 남북불교도 사이에 연대와 단합의 기운이 한층 높아진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했다. 조계종과 조불련은 지난해 3월 중국 심양에서 남북대표자회담을 열고, 10월 금강산 신계사 8주년 공

동법회를 갖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불교계는 화쟁사상을 통한 통일 아젠다를 담은 '불교통일선언'을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서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며 반목한지 어느덧 70년이 넘었다. 남북 교류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멈추기도 재개되기도 했다.

이제는 불교계 차원에서도 독자적 교류협력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북지원과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주장한대로 불교문화유적 공동발굴과 보존사업, 평양 불교문화원과 의료원 및 한의대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올해는 남북이 통일 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지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 남북 불교계도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지역민 끌어안은 봉은사의 변신

2016년 새해벽두 서울 봉은사가 야간 개방을 시작하며 대변신한다. 봉은사 주지 원행 스님은 구랍 29일 다래헌서 간담회를 갖고 새롭게 달라지는 봉은사의 면면을 알렸다.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 열린 사람로 한층 더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진 봉은사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히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야간 개방이다. 진여문, 범왕루, 미륵대불, 범종각 등 7개 전각에 조명을 설치해 밤 12시까지 문을 개방할 예정이다. '빛의 봉은사' 야간 개방은 해마다 증가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겨냥한 조치이다. 코엑스역과 봉은사역을 통해 늦은 시간에도 봉은사를 찾는 지역

주민들과 외국인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화려한 천년 고찰의 밤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내실을 기하는 변화도 눈길을 끈다. 법회를 연령과 계층에 맞게 다양화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불광보조 일요법회', 신도회 중심의 '봉은법회',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계층법회' 등이 그것이다. 교육 도량으로서의 발전도 꾀한다. 종단 기본교육과정인 '기초학당'을 전문교육과정인 '불교대학'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불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불교학 가운데 선행학과를 신설, 전문 불교 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남을 대표하는 사찰인 봉은사의 새해 변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발언대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

구랍 28일 한·일 정부가 도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안'에 대해 나눔의집 등 종교·시민사회계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으며, 협상안에 법적 배상이 빠진 것도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불교계 단체의 성명과 의견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피해자 빠진 정치적 야합”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구랍 28일 한일 외교장관급 긴급회담은 피해 당사자가 빠진 정치적 야합이다.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장관급회담이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언론을 통해 들었다. 회담 계획이 거론되고, 심지어 협상안이 타결됐을 때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정부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권 문제고, 개인의 청구권 문제다. 한국 정부는 당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협상안은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마저 무력화시키는 '폭고'다. 국민 정서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인권 문제'로 규정돼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번 협상안을 인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피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합의문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안 도출에서 일본 정부에 완전히 패했다. "우리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며 울먹이는 할머니들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법적 책임없는 사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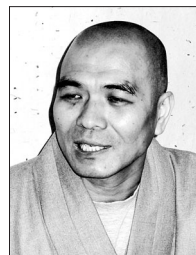


유지원
불사넷 운영위원장

이번 합의는 사과의 주체가 내각총리대신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총리의 직접 사과가 아닌 대독사과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합의는 피해자의 의견과 국민여론이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그간 제시되었던 합의안에도 미치지 못한 외교적 답답함이 짙어졌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등 피해자와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 및 관련단체와 사전 상의 없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일관적인 단어들 써가며 밝힌 이번 합의가 양국의 합의문조차 없이 기자회견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불과 몇 일전까지도 역대 정부의 입장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던 한국 정부가 왜 이번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돌연 피수 기식 합의를 했는지 의아하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사죄의 필수적인 요소인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인정과 배상, 후속조치 등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어 진심어린 사죄라 보기 어렵다.

한일 합의의 전면 재검토돼야



퇴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이번 합의는 총리에 의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며 직접적인 사과 부재, 향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모호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노력 훼손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합의 내용 중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해 한국 정부가 향후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등 정부 스스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외교의 고립을 자초하였다. 부디 1965년 한일협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외교장관 회담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의 여론을 보다 면밀히 살펴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등 신중한 외교적 행보를 보일 것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팀	www.hyunbulnews.com
		쇼핑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 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우므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용,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학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꿔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는 “왜” 팔히 지내야만 하는가?
-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